

<2> 방사선진료 환자와의 대화

명지종합병원

정 순 규

어떤 조직체이든 형태에 관계없이 목적성취를 기함에 있어서는 자금(money), 물자(material), 인력(man power)이라는 3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중에서도 인력관리는 경영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병원의 인력구성은 타직종 어떤 분야의 조직체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다.

첫째, 여자(간호사)가 구성원의 주종을 이루고, 둘째, 학력의 격차가 아주 심하며, 셋째, 여러 전문직종들이 집합된 조직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직원간의 단순한 쌍방관계가 아닌 경영자와 직원 사이에 환자라는 별개의 개체가 연계되는 3자 관계이므로 높은 수준의 인력관리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요즈음과 같이 불신 내지 불친절의 악성이 가중되고 있는 병원가의 실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영자와 직원간에 관한 인력관리기법에 앞서 직원과 환자사이에 진료업무와 관련한 관리기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의사와 환자사이, 간호사와 환자사이, 의료기사와 환자 사이, 행정요원과 환자 사이 등 고찰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므로 단번에 전체를 살펴보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선택한 고찰 부분이 방사선사와 관련한 patient care 중, 환자와의 대화에 관한 선례들을 나열·분석 해보고,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도움을 얻고자 한다.

환자의 질병치료에는 반드시 약물이나 수술 등으로만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따뜻한 한 마디의 말, 사랑이 담긴 대화, 환자의 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언행도 물리적 치료에 버금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입상에 임할 수 있는 자세확립을 위하여 환자관리에 적절한 언행 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3> 방사선촬영에 있어서의 환자심리와 대응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이 창 업

최근에 patient care에 대해서는 많이 대두되고 있으나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식과 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상황과 사람과의 대응에 따라 틀려서 그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Patient care에 있어서 방사선사는 환자를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불안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실제 이행하므로써 의료현장에서